

# 맞춤형 비서 VS 사생활 침해...구글 AI '빛과 그림자'

## 음성인식·번역·화상 판독 등 기능 호평 속 개인정보수집 논란

최근 수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여러 대기업이 인공지능(AI)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가장 앞선 업체는 구글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AI에 대한 접근 방식 중에서도,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머신 러닝'이 각광을 받으면서 구글은 다른 기업들이나 연구기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컴퓨터를 훈련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직접 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진 정리, 음성인식, 질병 진단을 위한 사진 판독, 공장 품질 관리, 멸종위기종의 서식 여부 파악 등이 그 예다.

구글의 AI 분야 최고 연구자(시니어 펠로)인 제프 딘 등 연구·개발자들은 28일 일본 도쿄의 구글 재팬 사무실에서 열린 'AI와 함께' 행사에서 구글의 AI 사업 전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 60여명에게 소개했다.

◇ 시각 인식 기술=최근 일상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구글 기술은 넓게 보아 '시각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이나 그림 파일에 나타난 물체가 어떤 것인지 컴퓨터가 파악하는 기술이다.

'구글 포토' 서비스는 사진에 나타난 물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사진을 찾아 주고 분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고양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사진을 찾아 준다.

주제별, 상황별로 사진을 모아 자동으로 앨범이나 동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구글은 사진 판독을 통해 당뇨성 망막병증이나 유방암 등 일부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컴퓨터는 엄청난 분량의 사진을 매우 빠른 시간에 판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흐릿하거나 크기가 작아 인간이 놓치기 쉬운 특이사항을 찾아 내는 데도 능하다.

◇ 음성인식·자연어처리 기술=기계는 사람의 목소리 등 소리를 듣고 이를 판별하는 '음성인식', 그리고 그 의미와 맥락까지 파악해 인간 언어로 답을 주는 '자연어처리' 기술도 우리 생활을 바꿔 놓



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성 입력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구글 홈' 등 가정용 스피커나 스마

트폰을 통한 음성비서 서비스도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 홈은 최대 6명의 목소리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아빠가 '오늘 내 일정이 어떻게 돼?'라고 물으면 일정을 보여 주고, 곧이어 딸이 '내 사진 TV에 띄워 줘'라고 하면 딸의 최근 사진이 TV에 나타나는 식이다.

'구글 번역'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글이나 표지판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읽어들이 이를 사용자가 아는 언어로 번역해 주는 '워드렌즈' 기능이 포함돼 있다.

◇ 패턴 인식과 상황 판단=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과 웹 브라우저인 '크롬'에도 AI를 활용한 패턴 인식 기술이 포함돼 있다.

스팸 메일이 악성코드가 숨겨진 웹사이트 등은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파악해 미리 알려 주고 차단한다. 또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습관이나 일정 등 상황을 파악해 자동 응답을 추천해 준다.

'구글 지도'에는 과거 특정 지역의 주차 상황 데

이터를 바탕으로 이 시간대에 어디에 가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해 알려 주는 기능도 있다.

검색 등 사용자의 사용 습관과 최근 상황, 구글 지메일로 들어온 항공편 예약 정보, 날씨정보 사업 자로부터 가져온 일기예보, 사진에 들어 있는 위치 정보와 피사체 정보 등을 종합해서 답하는 능력을 갖췄다.

◇ 사생활 침해·편견 제거 등 난제=다만 데이터를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센 점은 구글의 AI 사업이 지닌 그림자다. AI 분야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인간 사회에 만연한 편견이 반영된 데이터가 AI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걱정거리다.

구글 포토의 경우 2015년 제품 출시 직후 초기에 흑인을 '고릴라'로 분류하는 오류가 지적돼 부랴부랴 수정된 적이 있다. 이는 초기 구글 포토 AI의 훈련에 흑인들의 사진 샘플이 많지 않아 AI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AI의 사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므로, 사용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사회적 편견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12월 4일 달이 커보이는 원리.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달이 정반대 편에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며, 타원 궤도를 도는 달이 근지점을 통과할 때 달이 더 커보인다.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12월4일 '슈퍼문' 뜬다

오는 12월 올해 뜨는 달 중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12월 4일 새벽 12시47분에 이른바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름달은 서울 기준 다음달 3일 오후 5시 14분에 뜬다. 다음날 새벽 12시24분에 가장 높이 뿔다가, 오전 7시 40분에 진다.

광주시의 경우 보름달은 12월 3일 오후 6시13분에 뜬다. 새벽 12시24분에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오전 7시35분에 질 전망이다.

슈퍼문은 지구와 가장 가까워져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는 보름달을 말한다.

이날 뜨는 보름달은 올해 가장 작았던 보름달(6월 9일 밤 10시 10분)보다 14%가량 더 커보인다.

달이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가장 동글게 되는 '망'(望)인 동시에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달은 타원형 공전궤도를 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 차이에 따라 관측 크기도 달라진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달은 커보이고 멀면 작게 보인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다음달 4일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약 35만7623km다.

평균거리인 38만4400km보다 3만km가량 가깝다. 지난 6월 9일엔 약 40만6399km로, 평균보다 2만km 이상 멀었다.

다만, 맨눈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커보이는 것인지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천문원은 "달과 지구 사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달이 크게 보이는 데에는 대기상태나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출시 첫날인 24일 7만대가, 다음날인 25일 3만대가 각각 개통됐고 27~28일 양일간 2만대가 개

## LG페이, 신세계·파리바게뜨서도 서비스

LG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LG페이가 사용 대상이 신세계 및 SPC 계열사까지 확장된다.

LG전자는 29일부터 LG페이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3300여개 신세계 계열사 매장과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6000여개 SPC 계열사 매장에서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LG 페이는 스마트폰에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신용 카드와 동일하게 결제되는 서비스다. 올해 6월 서비스 개시 이래 8월 국내 모든 신용카드는 지원을 시작했고 출시 6달 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국내 매장 대부분에서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LG페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G6 시리즈와 하반기 전략 스마트

폰인 V30 시리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중저가 제품들에도 LG페이를 적용해 적용 제품군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LG페이 전용 카드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달 신한카드와 손잡고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LG페이 고객들이 자주 쓰는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 'LG페이 신한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LG전자 MC경영전략팀 담당자는 "LG페이의 사용 국가 및 결제 수단을 확대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아이폰X, 국내 출시 나흘만에 12만대 개통

애플의 아이폰 10주년작 아이폰X이 국내 출시 후 나흘동안 12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능 특수 기간과 맞물려 아이폰X이 아이폰8, 아이폰6S 모델 등 전작 시리즈의 인기도 견인하고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24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X은 24~28일(일요일 26일 제외) 12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 첫날인 24일 7만대가, 다음날인 25일 3만대가 각각 개통됐고 27~28일 양일간 2만대가 개

통된 것으로 보인다.

개통량 대부분은 사전예약분으로, 일부 현장 개통수량이 포함됐다. 사전예약량은 이통3사를 합쳐 30만~40만대로 추산되는데 허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약량의 상당수가 아직 개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일반 판매는 일부 매장에 서만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물량 공급이 원활해 이번주 내로 사전예약량 개통이 끝나고 다음주엔 현장 구입 역시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